



**하나금융그룹, '같이 도시락' 지원사업 실시**

하나금융그룹이 공익재단법인 청소년 그루터기를 통해 '같이 도시락'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서울시 내 3구(노원·은평·구로)에서 우선 선정된 장애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약 500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3~4인분의 도시락을 제공한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겸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이사장(오른쪽)과 오승록 노원구청장(왼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NH농협 IT사랑봉사단, 농·축산물 나눔 행사**

NH농협 IT사랑봉사단은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와 함께 '추석맞이 우리 농·축산물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NH농협 최창렬 성남시지부 총무팀장(왼쪽부터), 오승철 성남시지부장, 서울구 IT노조위원장,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박수기 농협은행 IT기획부장, 김원일 농협중앙회 IT기획부장, 기동근 IT노조 사무국장 지난 10일 성남문화원에서 열린 추석맞이 나눔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TIPAs, 추석 앞두고 세종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이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 기관이 지난 5월 이전 해 온 세종시 조치원에 위치한 세종 전통시장에서 명절 준비에 필요한 지역사회 농산물을 구매하는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세종전통시장에서 지역 농산물을 구매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TIPA

**인사**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본부장급 △바이오의료헬스 본부장 김진수
- ◆더구루 ◇신규선임 △증권·IT 에디터(부장) 최영희 ◇승진 △금융부 차장 홍성환
- ◆방위사업청 ◇과장급 전보 △방위사업분석과장 최진용 △인증기획과장 송소연 △대협력사업팀장 이명 △지원체계관리팀장 임재웅
- ◆경북 성주군 ◇4급 승진 △기획감사실장 김대현

**부음**

- ▲ 김원식씨 별세, 김용현·김건희·김용자·김호윤씨 부친상, 김난영(뉴시스 워싱턴 특파원)씨 조부상 박명숙·박미순씨 시부상, 민달식·이준용씨 장인상=1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5시30분, 031-923-7000
- ▲ 나원길(전 한솔제지 이사)씨 별세, 나영진(민심라이브 대표)씨 부친상, 임용순(MBC총복 보도국 부국장)씨 장인상 = 11일 오전 3시31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7일 오전 11시, 031-219-6654

# 국민지원금 보다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이상연의  
창업 칼럼**

540만 소상공인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힘든 시간을 눈물을 흘리며 보내고 있다. 하루하루 피리피리며 가게 출입구와 전화기를 바라보는 마음은 힘겹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 발표에 따른 업종별 탄식의 소리가 안타깝다. 소상공인들은 기본적으로 경성비 중 고정비의 비율이 무겁기 때문이다. 그중 임대료와 인건비는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동성이 없는 비용으로, 늘어 어렵게 지불하고 있는 실정임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이번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국민의 경제적 어려

움을 각종 지원금과 세제 혜택, 무담보 신용대출 등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소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과 조건 등 판정 기준의 애매함에서 비롯된 '재난지원금 신분계급표'가 인터넷에서 사회적 풍자로 대두되어 눈길을 끈다.

신라시대에 시행되었던 골품제를 빗댄 해당 계급표가 등장한 것이다. 성골(상위3%), 진골(상위7%), 6두품(상위12%), 평민(상위 90%), 노비(상위100%) 등 계급은 5개로 나뉘었다. 지급기준표에 의하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은 모두 평민과 노비로 분류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의 "나는 노비였다"는 자조 섞인 글이 마음을 찌른다.

이번 선별지급에는 정부 관계자

들의 고민과 균형적 지급을 위한 노력, 재정적 고려가 있었겠지만, 지급 기준을 접한 많은 국민이 반감을 가졌으며 등급에 따른 지원이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켰다. 조건 없는 분배가 계속되면 오히려 의심과 탐욕,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도 이러한 지원금으로 부를 유지하는 것은 공정도 평등도 없는 세상이다. 노력한 만큼에 대한 배분이 민주주의의 기본 경제 개념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위드 코로나(WITH COVID-10)라는 현실적 명제가 명확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추석 이후 국민의 70% 접종률을 달성하는 시점부터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검토한다고 한다. 위드 코로나는 지금처럼 격리와 방역에 의존해 바이러스를 차

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백신과 치료제로 사망자와 중증 환자를 최소화하며 일상생활로 서서히 복귀하는 방역 전략을 의미한다.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속담이 있다.

그동안 몇 차례 지원한 재난지원금은 우선 먹는값이 달달이, 당장의 달콤함만 쫓는 지원이었다. 소상공인들은 스스로 자립이 필요한데, 지속적인 지원이 아닌 경우 자립적 운영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의 운영과 활동만이 정답이다. 감각과 독감과 같이 달래며, 조심하며,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조금 더 함께 지키며 생활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함께라는 의미에는 '재난지원금 신분계급표' 같은 구분과 차별,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전설명학 박사)

## SK이노, 울산지역 민·관·기업과 '脫플라스틱' 실현

**'산해진미 자원재순환 플로깅' 분리수거 인식 개선 캠페인도**

SK이노베이션이 울산지역 민·관·기업과 연합해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은 13일 대왕암공원 내 상설 야외무대에서 울산시, 그린리더울산협의회, 동구자원봉사센터, 울산사회복지관협회,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시산 등 민·관·기업과 함께 '산해진미(山海珍美) 자원재순환 플로깅' 발대식에 참여했다.

산해진미 플로깅은 최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폐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 산(山)과 바다(海)를 지켜 참(眞) 아름다운(美) 지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친환경 캠페인이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스웨덴에



13일 대왕암공원에서 개최된 '산해진미(山海珍美) 자원재순환 플로깅' 발대식에 SK이노베이션, 울산시, 그린리더울산협의회, 동구자원봉사센터, 울산사회복지관협회,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시산 등이 참여했다.

서 시작돼 복원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행정기관 내 병뚜껑 수거함 설치와 공무원의 참여를 지원하게 된다. 그린리더협회는 회원들의 플로깅과 병뚜껑 등 재활용품 배달을 지원하고, 동구자원봉사센터는 플로깅 활동 주관과 참여할 예정이다.

울산사회복지관협회는 민간시설

병뚜껑 수거함 설치와 재활화분 세트를 전달하고,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비 배분과 행정 지원하며, 우시산은 재활화분 제작을 맡게 된다.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는 플로깅 및 재순환 활동을 추진을 위한 선금 3500만원을 그린리더울산협의회에 지원하며, 구성원들은 플로깅 활동에도 직접 참

여한다는 계획이다.

플로깅은 이날 체험에 이어 오는 11월까지 3회(1차 대왕암공원, 2차 롯데백화점광장, 3차태화강국가정원)에 걸쳐 실시하며, 기업과 시민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및 분리수거 인식 개선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대유위니아, 체육시설 소상공인에 1.2억 기부금 전달

**MBN 女 오픈 대회 이벤트 일환 '힘내세요! 소상공인' 상생나눔**

대유위니아그룹이 어려움을 겪는 체육시설 소상공인에 작은 힘을 전달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힘내세요! 소상공인' 상생 나눔 기부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달 끝난 KLPG A투어 '대유위니아 MBN 여자 오픈' 대회 사전 공헌 이벤트 후속 활동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유위니아그룹이 마련한 1억원과 위니아 프렌치존 및 희망의 버디홀로 구성된 선수 참여 사회공헌 이벤트 적립금으로 기부금 1억2140만원을 마련



김상국 대유몽베르컨트리클럽 대표이사(왼쪽 3번째)와 허영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왼쪽 4번째) /대유위니아그룹

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10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포교육장에서 기부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정기탁했다.

김상국대유몽베르컨트리클럽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체육

시설 인원 제한 및 운영 중단 등으로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번 골프대회를 통해 마련된 사회공헌 이벤트 적립금이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난 해소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용기자 juk@

## 아모레퍼시픽 협력사 거래대금 470억 조기 지급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운용을 돕고자 470억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

대상은 아모레퍼시픽그룹 8개 계열사에 원부자재, 용기, 제품 등을 공급하는 750여 개 협력사다. 9월 24일까지 내줄 예정이던 470억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앞당겨 13일부터 순서대로 지급한다.

아모레퍼시픽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 협력사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원민씨 기자 silverbeauty@